

칸트 哲學의 梗概 그 系統的 考察(五)

李相殷

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저서는 안된다. 時와 空은 아직 素性の 條件 오즉 經驗을 感得하는 方式일 뿐이다. 故로 時와 空의 應用은 오즉 經濟世界 內에 局限도 니것시오, 決코 非 經驗的 事物인 物自體나 或은 本體界에까지 應用 할 수 잇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그러타하여 우리의 經驗的 知識이 確實性을 □損當 할 것도 아니다. 時와 空은 『物自體』에 關한 것이겟든지 或은 다만 우리의 知覺方式이겟든지를 勿論하고 우리의 知識은 依然히 確實性을 일치 안는다. 왜 그러냐하면 우리의 知覺하는 바 事物은 事物 自體가 아니며 우리의 知覺하는 바 事物의 關係로 또한 事物 自體의 關係가 아인 까닭이다.

所謂 『事物自體』라 하는 것은 우리의 感性和 아무런 關係도 가지지 안는다. 엇던 事物이 우리의 눈에 到達 할 쟈 우리는 빛을 知覺하고 어덧 事物이 우리의 귀에 導達 할 쟈 우리는 소리를 感覺 할 쟈름시오, 이 맞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感覺케 하였스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感覺케 하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업다. 獨斷的 唯理論者들은 이 알 수 업는 物自體에 까지 時와 空을 應用하여 드되여 本體界의 怪物을 現象界의 事物처럼 □□식 한다. 그들의 失敗는 여기있다.

그러면 時와 空이 吾人의 事物을 知覺하는 方式이라면 그것은 다만 우리 人類의게만 特有한 것인가? 其他 生物도 다 그러한 것인가? 칸트는 다만 우리 人類의 特有한 것이라고 하였다. 이 點에서 時와 空은 主觀的 或은 概念的의 것히라 할 수 있다. 그러나 다른 意味에서 본다면 經驗의 모든 現象은 모다 時와 空의 秩序 中에 配置되야 어느 한 事物도 時的 條件을 經過치 안코 吾人의 새 經驗되난 것이 업스며 어느 한 事物도 그것이 外界現象으로 잇슬 쟈에 空間的 秩序에서 並存치 안음이 업다. 이 點에서 時와 空은 必然的의 것인 同時에 또한 普通的의 것이다. 故로 그것은 客觀的 或은 實在的이라 할 수 있다.

總하여 말하면 知識이 成立하려면 우리의 心靈은 外物을 接受하여야 한다. 그러나 接受라 함은 오로지 被動이 아니요, 一面 接受하며 一面 또 自己의를 (時空)에 依하여 鑄造하는 作用을 兼한다. 만약 우리가 接受만하고 만다면 이는 다만 意識狀態의 變化에 不過하니 그러다면 우리는 永遠히 自己의 主觀 속에 갇치워서 客觀的 世界를 認識 할 수 없을 것이다. 그럼으로 우리의 感覺은 반듯이 그것을 客觀하여야 한다. -即 時空的 秩序 中에 配置하여야 한다. 이 客觀世界가 이러케 되는 所以는 確實히 우리가 이러한 知覺의 方式이 잇기 때문이다.

第三節. 性悟과 및 그 概念.

以上 말한 바에 依하여 直□成은 知覺이 엇더케 成立되는 것을 알었다. 그러나 다만이 □□한 知覺만으로는 아즉도 知識이라 할 수 없다.

知識은 一種의 判斷이다.

判斷은 主詞와 賓詞가 한 곳에 連結된 것이다. 다만 한 個의 主詞기나 다만 한 個의 賓詞만으로는 到處히 一個 判斷을 成立시키지 못한다. 普컨대 내가 一個 『불』의 知覺이 잇고 또 □□하여 『뜨거운 불』의 知覺이 잇다. 다만 이 獨立的 兩個의 知覺- 『불』, 『뜨거운 불』-만 가지고서는 아즉도 『불이라니 불이 뜨겁다』는 것을 알었다 할 수 없다. 반듯이 思想 中에서 이 두 개의 經驗을 엇던 方式 □맞치 因果的 方式에 依하여 한 곳에 連結시킨 後에라야 비로소 『불타기 때문에 불이 뜨겁다』는 判斷을 構成시킨다. 맞귀 말하면 感性이 비록 知覺을 供給하얏스니 悟性의 思離를 經過치 안코는 知識을 成功 할 수 없는 것이다. 知識은 悟性이 업시 成立치 못한다. 感性은 直觀하는 것이오, 悟性은 思離(Teimk)하는 것이다.